

깊이 있는 연구, 새로운 시각, 다양한 주제!

불교학술서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는 도서출판 운주사의 <프리즈나 총서>



- | | | | | |
|--|--|--|--|--|
| <p>1 불교철학의 역사
연속과 불연속
D. J. 칼루파하나/김종욱 역/신국판양장/544쪽/25,000원</p> <p>2 한국의 불교의례 I
상용의례를 중심으로
정각/신국판양장/460쪽/23,000원</p> <p>3 밀교학 개론
밀교란 무엇인가
종석/신국판양장/286쪽/12,000원</p> <p>4 범화경의 성립과 배경
인도문화와 대승불교
塚本啓祥/이정수 역/신국판양장/576쪽/27,000원</p> | <p>5 성철선사상
돈오돈수와 중도·영원에서 영원으로
도대현/신국판양장/448쪽/23,000원</p> <p>6 인도불교사
그 사상사적 이해
정순일/신국판양장/726쪽/33,000원</p> <p>7 주역선해연구
불교사상과 유교사상의 융합
정화/신국판양장/510쪽/25,000원</p> <p>8 율장의 승단분열 연구
역사와 종교의 변증법적 이해
자현/신국판양장/280쪽/15,000원</p> <p>9 불성론 연구
도겐의 『정법안장』을 중심으로
최현민/신국판양장/368쪽/18,000원</p> <p>10 불교의 마음챙김과 사상의학
불교와 의학의 만남
불교와 사상의학 연구회 편/신국판양장/416쪽/23,000원</p> | <p>11 청송의 선과 철학
선사상과 서양철학의 회통
스광희 외/신국판양장/312쪽/18,000원</p> <p>12 불교미술사상사론
불교철학과 미술사의 통합적 인식
지현/신국판양장/304쪽/18,000원</p> <p>13 천수경 연구
현행 『천수경』의 성립 및 구조에 대한 분석
정각/신국판양장/500쪽/25,000원</p> <p>14 역경학 개론
불전佛典의 성립과 진승
최중남 외/신국판양장/454쪽/23,000원</p> <p>15 현수법장 연구
화엄교학의 대성자
계현/신국판양장/252쪽/15,000원</p> <p>16 유식삼십송 풀이
유식불교란 무엇인가
후카우라 세이분 저/신국판양장/500쪽/25,000원</p> | <p>17 불교사회복지개론
불교사회복지의 사상과 역사, 실천체계 및 현황
조보라 외/신국판양장/408쪽/20,000원</p> <p>18 한국 고대 정도신앙 연구
『삼국유사』에 나타난 신라 정도신앙을 중심으로
현승/신국판양장/320쪽/17,000원</p> <p>19 경봉 선사 연구
생애 및 사상, 수행과 결과를 중심으로
정도/신국판양장/304쪽/17,000원</p> <p>20 화엄경의 문학적 연구
입법계품에 나타난 선재동자의 구도여행을 중심으로
도업/신국판양장/360쪽/18,000원</p> <p>21 정도 수행관 연구
영명현수의 사상과 수행을 중심으로
법삼/신국판양장/524쪽/25,000원</p> <p>22 정도불교의 역사와 사상
정도불교의 기원과 전개, 교리와 인물을 중심으로
현승/신국판양장/436쪽/23,000원</p> | <p>23 동산의 불교계 정화운동 연구
한국불교 정통성 회복을 중심으로
진관/신국판양장/242쪽/15,000원</p> <p>24 한국불교 의례체계 연구
시식, 공양, 송주 의례를 중심으로
이성문/신국판양장/454쪽/23,000원</p> <p>25 청송의 생애와 선철학
동서양의 철학적 사유에 가교를 놓다
스광희/신국판양장/212쪽/15,000원</p> <p>26 불교세시풍속
기록으로 만나는 불교 세시풍속과 문화
오인/신국판양장/446쪽/23,000원</p> <p>27 삼계교 사상 연구
신행의 사상과 실천, 신라불교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법공/신국판양장/424쪽/23,000원</p> <p>28 범망경보살계본회해
천태지자·운서주경·영봉우익의 주석서들을 종합한 주제
이원정 편/목정배 역/신국판양장/556쪽/28,000원</p> |
|--|--|--|--|--|

도서출판 운주사 전화 (02) 926-8361 ● 주문 (02) 3672-7181 ● 인터넷 서점: 붓다북 ● 다음카페: 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book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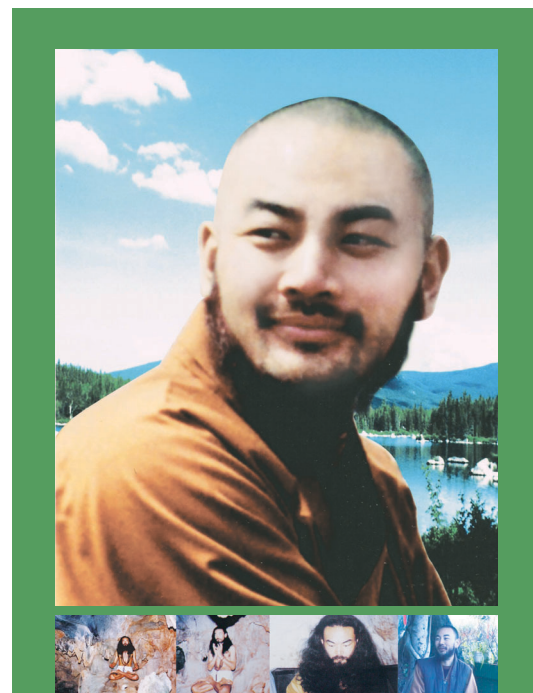
“이것이 수행의 길이다” 중국 동화선사 만행스님 수행서

6조 혜능, 람몽대사와의 기연!!

이론은 실천을 대신할 수 없으며, 단지 돌아갈 길을 단축시켜 걷게 할 뿐이다.
속세의 일에 성심성의를 다 할 수 있는 사람은 무문관 안에서 성심성의로 임할 수 있다.
22살에 시작한 7년간의 무문관 장좌불와!! 생과 사를 넘나든 혹독한 수행.



동화선사는 중국 광둥성 소관시 웅원현 동화산에 있다. 6세기 인도의 고승 지약삼장선사께서 오셔서 영취사를 창건하셨고, 7세기에 육조혜능대사께서 수행 득도하시고 영취사를 동화선사로 바꾸고 흥성시켰지만 15세기 이후로 쇠퇴하였다. 1997년에 만행스님이 지약선사와 혜능대사께서 수련하셨던 동굴에서 3년동안 폐관수련을 하였고, 드디어 불성의 근원을 증득하고 출관하여 동화선사를 복원 중창하였다. 만행스님은 동화선사를 선종의 도량으로 삼고, 대중들을 이끌어 해탈의 길을 전수하고자 서원하면서 “불교를 믿으려면 우선 나라를 사랑하고, 부처님공부를 하려면 먼저 사람노릇부터 잘하며, 도를 닦으려면 발심을 해야 한다.”는 동화사 가풍을 세웠다. 현재는 500명 이상 주할 수 있는 거대 사찰이 되었고, 이들 모두가 참선수행 정진하고 있다.



7년을 동굴 속에서 장좌불와한 경험을 기록한 것이 마음의 달이고 출판한 뒤에 동화사를 복원 중창하면서, 주간에 신도들과 함께 동화사의 공사현장에서 일하고, 야간에는 신도들에게 설법을 하셨는데 그 내용을 항복기심, 선용기심, 기심무주 세권의 책으로 출간.



- 마음의 달 I·II** ▶ 가격: 각권 1만원
7년간의 무문관 수행끝에 성품을 본 만행스님의 수련과 깨침의 과정 그리고 1천명이 향시 수도할 수 있는 수행도량 동화선사를 창건하게 된 보살행 이야기.
 - 항복기심** ▶ 가격: 18,000원
자기의 마음을 항복받는 것이다. 탐·진·치·만·의에 물들기 쉬운 마음을 잘 다스리면, 마음은 금방 광명해지고 환희로 가득 차게 된다.
 - 선용기심** ▶ 가격: 30,000원
자신의 마음을 착하고 좋게 쓰는 것이다. 마음을 선용하게 되면, 어려움과 고통과 역운을 이겨나가고 슬퍼서 마음 상하고 병드는 일이 없어진다.
 - 기심무주** ▶ 2016년 출간예정!!
자신의 마음을 한 곳에 머무르지 않게 하는 것이다. 집착을 하지 않는 것이요, 집착이 없으면 뒤집혀 넘어지는 일이 없어지고 동상에 빠지지 않으며 항상 각조를 지닐 수 있다.
- 항복기심, 선용기심, 기심무주 이 셋은 수행해서 득도하고 보살행을 하는 세 단계의 과정을 뜻하면서, 수행할 때 가져야 할 마음자세이기도 합니다. 참선수행을 할 때 항상 이 세 마음을 받들면, 마음과 몸에서 곧바로 명월(明月)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 구입처 : 02)2249-5630 대유학당 / 전국 유명서점 및 온라인 서점

부처님의 감로법이 있기에

삶은 고가 아니다

대행 큰스님의 생활 속 불법 이야기



인생은 고통이 아닙니다. 생로병사의 괴로움이 있다고 하나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부처님의 감로법이 있기에 고통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는 성품 즉, 불성이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불성을 이룸이 한마음이라 하였습니다.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나의 보배입니다.

이렇듯 내 집 창고에 보배가 가득한 줄도 알고 보배 창고 얘기도 많이 들었지만 열쇠가 어디 있는 줄 모른다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마음공부는 열쇠를 얻기 위한 공부입니다. 누구든지 열쇠도 갖고 있고 곳간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열쇠를 갖고도 열지를 못한단 말입니까? 마음이 굳 그 열쇠입니다.

- 본문 중에서

생활 속의 불법을 설하는 **대행스님 법어집** - (재)한마음선원 출판부 www.hanmaum.org

- ▶ 허공을 걷는 길 대행스님 법문 전집(법회별 출간)
- ▶ 한마음요전 대행스님의 구도기·범어·개승·선화의 집대성
- ▶ 신행요전(법요집) 기본적인 예불 의식과 관법의 기초를 담은 불자입문서
- ▶ 대행스님의 뜻으로 문 금강경(독송문)
- ▶ 만 가지 꽃이 피고 만 가지 열매 익어 A Thousand Hands of Compassion (Korean/English) 대행스님의 뜻으로 문 천수경(한글/영어)

주문은 헌불심!
02)2004-8216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